

개산 1200주년을 기념하는 법요식이 열린 10월 1일 해인사. 개산 조 순응스님과 이정스님을 기리는 법요식이 끝났는데도 도량 풍경이 분주하기만 하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차인들이 가을 단풍

해인사 개산 1200주년

'불전 헌공다례' 봉행

처럼 도량 여기 저기를 물들이며 오가고 있었다. 대적광전 앞마당에는 넓은 돗자리가 펼쳐지고 좌복이 깔렸다. 해인사 창건 당시 세워진 장종탑을 중심으로 사방에 희색빛 좌복과 차도구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놓였다.



10대 제자를 상징한 10명의 스님들과, 해인사개산1200주년을 상징한 120명의 차인들이 다구앞에 정렬해 있다.

“청정수 감로차를 올리나니...”

해인사가 개산 1200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마련한 불전헌공다례. 해인사 강원 스님들의 차도임 다경원(茶經院)의 비구 스님 5명과 산내 암자 상선암 비구니스님 5명을 비롯, 우바새 우바이 120명이 정렬해 있는 다구(茶具)앞에 앉았다. 10대제자를 상징한 10명의 스님들과 120명의 일반 차인들은 1200년 역사를 상징하며 사부대중을 대표해 부처님전에 차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타종과 함께 주지 세인스님, 강주 지우스님 등의 헌향. 헌화가 먼저 올려졌다. 진향을 피워 최고의 지혜를 내려는 마음과 깨달음의 묘과妙妙인 해탈을 얻을 때까지 부단히 정진하겠다는 서원을 담은 꽃, 향 공양이 끝나자 세 번의 죽비소리에 맞추어 점다點茶가 시작됐다. 다관에 마른 차잎을 담고 끓는 물을 부어 차를 우려는 점다, 빛깔, 향기, 냄새, 맛이 없고 신명진 진수眞水를 부어 정성껏 차를 우려내기 시작했을 때, 찻물 끓는 소리를 내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돗자리와 땅에 부딪치는 빗소리는 '소소소'를 연발해 '폭폭' 찻물 끓는 소리와 화음이 절묘했고 그럴수록 대중들의 고요는 깊어졌다. 말랐던 땅에 빗물이 스미며 피어 오른 흠내음이 차향에 보태져 차향이 더욱 진하게 피어올랐다.

내리는 비로 옷이 젖고, 앉아 있는 자리마저 젖어 들었지만 부처님전에 올려질 차를 우려내는 차인들의 손놀림은 고요하기만 했다. 진색(眞色), 진향(眞香), 진미(眞味)를 내는 진다眞茶와 진수가 중정(中正)의 도에 의한 점다의 승세를 만났을 때 비로소 '참마음'의 세계가 담긴 감로(甘露)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빗속에서 일체의 분별을 내려놓고 텅빈 마음으로 차를 우려는 차인들의 모습은 그대로 선다일어禪茶一如의 경지를 느끼게 했다.

"헌다하시오" 사회자의 말이 떨어지자 다완을 높이 받쳐든 스님들이 먼저 대적광전을 향하는 계단을 오르고, 그 뒤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120명의 차인들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 수행 정신을 일깨우며 차례차례로 계단을 올랐다. 한

걸음 한걸음 부처님전을 향해 나아가는 차인들과 함께 지켜보는 대중들의 마음은 하나 같아졌다.

한다가 끝나자 다계가 이어졌다. 동참 대중들도 나직히 마음속으로 따라 외었다.

"아금청정수 俄今淸淨水 변위감로다 變爲甘露茶 봉헌삼보전 奉獻三寶前 원수자 비에남수 願垂慈惠哀納受 제가 지금 맑은 물을 감로의 차로 만들어서 삼보님전에 받들어 올리오니 원컨대 어여베 여겨 저두어 주소서"

삼귀의, 반야심경, 헌향, 헌화, 점다 및 헌다. 다계의 순서로 50여 분간 이어진 이날 불전 헌공다례는 퇴공으로 끝을 맺었다. 삼보에 대한 공양이 여법하게 끝났음을 알리는 죽비 3타가 다시 울렸다. 불전에서 차를 내리는 퇴공의 순서 뒤에 다인들이 헌공다원에 서 수구에 차를 따워 세 번에 나눠 올리라는 순서가 이어지게 되어 있으나 이날은 우현 관계로 퇴공으로 끝을 맺었다.



대적광전 앞에 마련된 차단위에 차를 헌공하는 차인들.

불전에서 차를 내려 다시 마당이 되돌아 오는 것으로 불전 헌공다례가 여법히 마쳐지자 거저말처럼 빗줄기가 잦아 들었다. 먹구름이 걷히고 대적광전과 앞마당 위로 푸른 하늘이 열렸다. 개산의 모습이 이러했을까? 사바의 먹구름과 중생들의 업장을 맑음



다완을 높이 받들고 부처님 전에 차를 올리러 대적광전 계단을 오르고있다.

스님·차인 120명 茶具앞에 타종과 함께 헌향·헌화 죽비소리에 맞춰 點茶 진색·진향·진미의 차 완성 스님·차인 다완높여 헌다 "진수로 감로차 드리니" 茶偈 퇴공후 참석자들 차맛 음미

히 견어내고자 산을 열었던 개산조들의 마음처럼 햇살이 내리고 하얀 물안개가 산허리를 타고 흐르며 신비감을 더했다. 청도의 금정다례원에서 참석한 임상점(64세)씨는 "차공양을 올리고 나니 과거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기분이 든다"며 "오늘 내린

비는 중생들의 업을 씻어 내리고 맑은 마음, 참마음을 공양 올리라는 부처님의 자비하신 가르침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날 불전 헌공다례에는 석정원(서울) 푸른차문화원(대구) 중정다례원(청도) 아라야 다도회(부산) 등 전국 각지의 차인들 중에서도 수

“차 마시는 일도 수행의 하나”

다경원 원장 도안스님

"해인사 강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이 차를 좋아하는 학인들의 다도모임 '다경원'입니다. 오늘 헌공다례도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가야산 마애불 부처님께 다공양을 올리오던 다경원의 전통이 있었기에 가능했지요." 다경원 원장 도안스님



경전(茶禮經卷-차를 우려내는데 필수품인 화로인 다로와 경전의 문구로 적은 두루마리)이라는 회지 발간을 통해 차문화 보급과 차에 관한 지식을 알리는 일에 주력해왔다. 이는 차문화 보급이 삭막한 세상에 부처님의 길로 수를 부여하는 역할을 할

매년 3월3일·9월9일 마애부처님께 차공양

은 다경원이 43년 전통의 해인사 강원 수행 가풍을 세우는 중심에 있다고 소개했다. 경전공부와 수행자의 위(威)를 익히기는 강원 학인들에게 차를 마시는 일은 곧 수행의 일부로 여겨질 정도로 비중이 높다. 1987년 12월 설립된 다경원은 <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가야산 마애불 부처님께 차공양을 올리는 헌다행사를 이어온 다경원은 해인사 개산 1200주년을 맞아 2년만에 회지 <다로경원(11호)>을 재발간하기도 했다.



진색·진향·진미를 내기위해서는 일체의 분별을 내려놓고 허공같은 마음으로 차를 우려야 한다.



헌다가 끝난후 퇴공하는 모습.

려니 길은 37개 다도회가 참석했다. 오래 다도를 익혀온 차인들에게도 불전에 차공양을 올리는 것은 일상에 단 한번일지도 모를 귀한 경험이다. BC 1500년-1200년경의 고대 인도에서 유래된 '샤원다례'는 부처님 생전시로 이어지며 참마음, 즉 초월의

상태를 차를 우려는 과정에 담아 올리는 의식으로 정착되었다. 이후 불사리탑에 차를 올리는 것이 일반화되어 곳곳의 부도전에 차공양이 올려지긴 했지만 법당 부처님전에 전통의식으로 차를 헌다하는 불전헌공다례 시연은 몇백년만에 재현된 이례적인 행사였다.

한편 다경원은 전날인 9월 30일에는 차문화강좌를 개최했다. 스님과 차인 등 모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전문대학원 석정원차회 원장 선혜스님의 '불교사원의 차문화와 차례', 임자주 주지 여연스님의 '현대생활불교와 차문화', 동국대 김상현교수의 '해인사와 차문화' 등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이날 여연스님은 "오늘날 차 문화는 고급과 최고만을 따지는 사치의 전유물처럼 변해버렸다"며 걸 모양만 호화스러운 형식을 중요시하는 현재의 차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오늘날, 차를 행하는 행위에 무게중심을 실어 진짜 중요한 차의 빛깔, 향, 맛을 체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우리 불교역사와 문화의 전통속에서 이어져 내려온 차문화를 막연히 현대라는 틀속에 가두지 말고 옛 시대의 발자취를 연구해,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새로운 차문화 정립에 나서자"고 말했다.

글=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jg01@buddhapia.com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인간 약초만 연구하여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대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인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다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늘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어토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